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증거물

얼마전 일본에서 1895년 10월 조선황궁에서 감행된 명성황후살해사건에 직접 가담하였던 당시 일본외교관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였다고 한다.

해당 편지는 당시 명성황후살해사건에 행동대원으로 가담하였던 조선주재 일본령사관 령사보 호리구찌가 만행을 저지른 다음날 쓴것이라고 한다.

편지에서 이자는 《우리가 조선황후를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사건경위와 담당하였던 역할, 소감까지 상세히 적었다고 한다.

그 편지는 력사에 《을미사변》으로 기록된 명성황후살해사건이 철두철미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에 따라 계획되고 집행된 야만적인 범죄사건이였음을 다시금 실증한 증거물이다.

19세기말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할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가지게 된 일제에게 있어서 중요한 방해물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아닌 명성황후였다.

강압과 회유의 방법으로도 명성황후를 틀어쥐지 못하게 되자 일제는 그를 아예 제거할 흉계를 꾸미였다.

그것이 조선주재 공사 미우라와 그 패당에 의한 명성황후살해음모였다.

당시 미우라가 《명성황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조선)에서의 우리의 세력은 몇달도 못가서 깨끗이 사라질것》이라고 줴친것은 일본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또 절실한 문제로 여기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사르도록 직접 지휘, 지시한 미우라가 히로시마감옥에 일시 《감금》되였다가 무죄석방되여 도꾜에 도착하였을 때 왜왕이 측근을 보내여 명성황후살해의 이른바 《공로》를 치하하고 위로까지 한 사실도 있었지만 이번에 폭로된 편지는 《을미사변》이 일본당국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국가테로행위였다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이처럼 일제가 력사적으로 저지른 죄악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도 죄많은 과거에 대하여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을뿐 아니라 그러한 의향조차 보이지 않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을 더욱 커지게 하고있다.

최근에 남조선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수십장의 반일선전화들이 인터네트에 게재되여 사회적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명할수 있다.

불타는 일본렬도나 일장기를 짓밟는 어린이들을 형상한 학생들의 그림을 통하여 남조선민심의 반일감정이 동심에도 그대로 반영되여있음을 알수 있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은 식을줄 모르고 더욱 고조되고있다.

다름아닌 일본이 그렇게 만들고있는것이다.

일본이 지난날의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두려 한다면 력사의 심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만 더욱 굳세게 해줄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지방소멸은 곧 사회붕괴를 의미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떠오르고있다고 한다.

《지방소멸》이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청년층류출과 고령화심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들이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의 《지방소멸》위험지역은 220여개 시, 군, 구가운데 108곳, 3 500여개의 읍, 면, 동가운데 1 791곳에 달한다고 한다.

력대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책으로 지방들의 교육조건과 의료 및 문화환경 등 생활형편이 《수도권》지역과 대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렬악한것도 그 원인들중의 하나이지만 중요하게는 일자리때문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판매액이 높은 1 000여개의 기업들중 700여개가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여있는것은 지방의 젊은층들로 하여금 《지방탈출》에 나서게 하고있으며 이것은 《지방소멸》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있다는것이다.

그들속에는 새로운 삶을 위해 농촌으로 갔다가 지역갈등과 수입부족으로 하여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청년들도 많다고 한다.

어느 한 농촌마을에는 60여명이 살고있는데 그중 20대 1명, 30대 0명, 40대 2명, 50대 14명, 60대가 8명이고 나머지 40여명은 70대 이상이라고 한다.

더우기 20～30대의 녀성들이 한명도 없어 이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린지는 20년이 넘었으며 마을은 점차 자취를 감출 위험에 처해있다고 한다.

2020년 지방에서 《수도권》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8만 7 700여명이였으며 그중 92%가 20대였다는 자료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에서 《지방소멸》위기의 심각성을 잘 알수 있다.

《지방소멸》위기는 특히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고 한다.

로인들만 남은 농촌에서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태풍과 장마, 악성전염병 등 여러가지 재난이 겹치면서 농민들의 고통은 날을 따라 더해지고있다.

여기에 효률성중심의 《신자유주의농정》으로 각종 《보조금》까지 받으며 쓸어들어오는 값싼 수입농산물들과의 경쟁은 농민들의 생활과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농민회총련맹, 녀성농민회총련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농민의 길》이 주최한 《2021 전국농민총궐기대회》에서 울린 원성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저곡가적페》, 《수입개방적폐》, 농업과 농민을 내팽개친 《무시적페》의 3대적페가 농민들을 짓누르고있다, 농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농촌에서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할수 있어야 소멸에 대응할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대전환》, 《농정대전환》을 위해 민중총궐기에 나설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사이의 《지역분렬》이 사회의 주요모순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방의 소멸은 곧 남조선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남조선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유 준

(사)전국미용생산자협회 전라남도지부
성평등한 농업정책 실현
여성농민
통일농업실현!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농민수당법 제정하라

농민기본법 제정하자!
적폐농정 갈아엎자!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농민기본법 제정하자!

농지를 농민에게
투기농지 몰수하라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
성평등 농업정책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농업불평등 해소하라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개방농정
신자유주의

단평

지옥에 가서도 저주를 면치 못할 극악한 대결광

지난 23일 남조선의 이전 독재자인 전두환이 죽었다고 한다.

그는 남조선에서 12.12숙군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하고 온 광주시를 피바다에 잠그었던 극악무도한 살인마이다. 두손을 인민들의 피로 물들이고 권력을 강탈하고 민주를 교살한 도저히 용서 못할 치떨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저세상에 가는 날까지 남조선인민들에게 사죄를 표명하지 않았다.

인두겁을 쓴 살인마, 독재광, 철면피한…

그러니 저승길에 올라서도 남녘민심의 저주와 비난을 받은 역도이다.

더욱 역겨운것은 그가 저세상으로 가면서 남겼다고 하는 《유서》의 내용이다.

역도는 이런 날이 올것에 대비하여 이미전에 쓴 자서전에 《유서》라는것을 남겼는데 그 내용인즉 《북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감격을 맞이하는 일》이 자기의 《념원》과 《소망》이니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아있고싶다.》는것이다.

한마디로 저승에 가서도 《흡수통일》이 되는 그날을 보겠다는 넉두리이다.

얼마나 동족대결에 미친 반통일분자인가.

그가 이전에 5.18광주인민봉기를 《북의 지령》을 받은 《폭도들의 란동》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으며 공화국의 평화적인 수력발전소건설도 《수공작전》을 위한것이라는 모략설을 퍼뜨리며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짜내 《대응댐》을 건설한다고 법석 소동을 피운 극악한 대결분자, 반통일분자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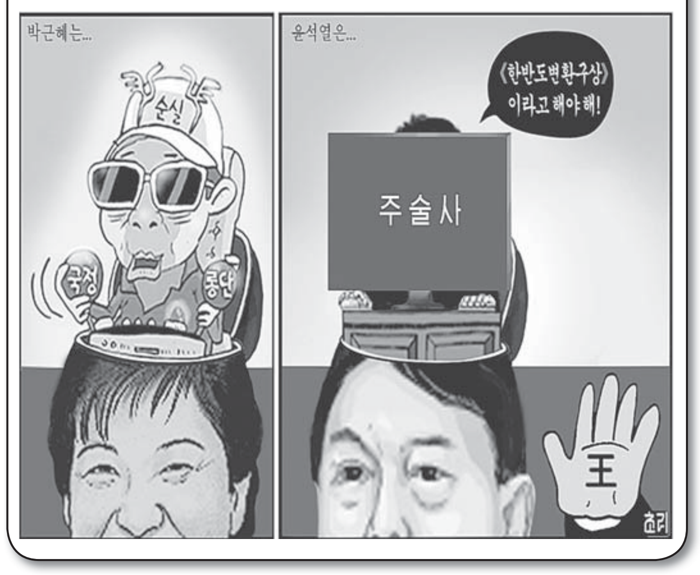
동족대결로 일생을 보내다가 그것도 부족한지 죽으면서까지도 동족대결의 《유서》를 남긴 전두환이다. 그러니까 온 겨레의 저주를 받을수밖에.

그러나 명백히 말하건대 역도가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아 《흡수통일》의 그날을 보겠다고 줴쳤지만 그런 개꿈은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

박명성

만평

《꼭두각시》



《남자 박근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라는 윤석열에게 새 오명이 생겨났다.

《남자 박근혜》.

《도리도리》, 《쩍벌》, 《본부장》부정부패 등 정계에 나서자마자 희한한 오명으로 이름떨친것도 모자라는 모양이다.

일인즉 얼마전에 있은 TV토론회에서 연단에 오른 윤석열이 2분동안이나 말을 못하고 어색한 표정을 지은채 두리번거리기만 했다는것이다.

연설문이 나오게 된 《프롬프터》(자막로출기)가 동작하지 않았기때문이라던지.

실황중계가 되는 속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놀아댄 윤석열의 몰골은 시청자들을 아연하게 하였다.

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옳은가? 자기의 《정책전망》을 발표하겠다는 사람이 연설문을 꼭 보아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시청자들의 머리에 떠오른것이 바로 박근혜였다고 한다.

심복들이 써준 연설문이 없으면 단마디말밖에 못하던, 《수첩공주》, 《메모공주》, 《어버버》라는 오명으로 유명했던 박근혜와 흡사하지 않은가.

박근혜가 무당아낙네 최순실의 주술에 놀아난것처럼 손바닥에 《王》자를 새겼던것도, 《하늘의 기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돕는다.》와 같이 동에 닿지 않는 소리만 하던 박근혜처럼 《주120시간로동》, 《손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와 같이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것도, 최순실과 심복들이 써준 연설문이 없으면 단마디밖에 못하던 박근혜처럼 《프롬프터》에 의거해서만 토론하려는것도…

아마 그날의 연설문도 어느 누가 써준것이 분명할것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입이라도 벌렸는데 윤석열은 또 실언, 망언이 튀여나올가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한동안 입을 벙긋도 못했으니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는가.

그날의 2분은 윤석열이라는 사이비정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세계앞에서 망신스럽게 드러낸 2분이였다.

유치원생만도 못한 윤석열을 남조선민심은 평가했다.

《남자 박근혜》.

본사기자 김정혁

국제적인 조소거리가 되고있는 남조선정국

다음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남조선정계의 개싸움에 대해 세계의 여러 전문가, 언론들이 이모저모로 평하고있다.

세계언론들은 《대선》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남조선여야당사이의 아귀다툼을 《오징어게임》에 비유하여 조소하였다고 한다.

《오징어게임》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있다는 남조선 TV극인데 외신들은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승자독식구조가 현재와 같은 선거판을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하였다고 한다.

특히 여야당의 후보들이 각종 부정부패의혹들로 민심의 랭대를 받고있으며 그들의 공약은 회의심만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의 여야당이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오그랑수를 쓰고있지만 그에 대한 반응도 싸늘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끝없는 비난전과 후보들의 부정부패의혹으로 선거판이 진흙탕속에 빠져들고있다고 조소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매일처럼 연출되는 정치막간극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국민의힘》이 여러가지 문제로 하여 불안에 쌓여있는데 대해 보도하고있다고 한다.

우선 선거대책위원회구성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윤석열과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인사이의 암투문제이다.

둘 다 선거대책위원회구성을 놓고 자기식대로 하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따지고보면 권력을 서로 나누지 않으려는 허욕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윤석열은 김종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그의 꼭두각시로 전락될수밖에 없다는 위구로 하여, 또 지지표를 여기저기서 다 긁어모으려는 욕망으로 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선거대책위원회의 요직에 어중이떠중이들을 올려앉히였다고 한다.

거기에는 김종인이 결코 만능해결사는 아니다, 김종인의 독판치기가 후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힘》내부의 불만도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

정치풋내기를 휘여잡고 남조선정치판을 마음대로 주물러보려던 김종인은 일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가는것을 거부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것이다.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선거대책위원회구성을 둘러싼 윤석열과 김종인사이의 불화가 심화된데 대해 보도하면서 서로가 결별할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있다, 《정권》탈환을 위한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조직도 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있다고 평하였다.

한편 《대선》후보선출경쟁에서 윤석열에게 밀려난 홍준표가 당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에 나서고있는것도 《국민의힘》의 골치거리라고 한다.

홍준표는 당내 경선결과에 《승복》한다고 하고서도 이후 련일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벌려놓고 윤석열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범죄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있는것만큼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남조선이 불행해진다는 등 《1일 1공격》을 들이대며 로골적으로 《반윤석열행보》를 걷고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20, 30대 청년층을 계속 끌어당기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자세력구축》으로 다음 권력을 넘겨다보는것이 아닌가 하는 보수세력내부의 의심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얼마전에 홍준표가 2027년 《대선》에 도전하는데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 나이는 수자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힘》이 홍준표때문에 몸살을 앓으면서 곤경에 빠져들고있다고 평하였다.

권력을 놓고서는 그 누구이건, 설사 부모형제일지라도 한치의 양보가 없는 권력광들의 집합체인 《국민의힘》이 연출한 정치막간극의 토막들이다.

본사기자 김광혁

사생결단의 험악한 싸움판

《이기면 영웅, 지면 역적》, 이 말은 동서고금의 력사에 기록된 하많은 권력쟁탈전들을 함축한 격언일것이다.

지금 여야당모두가 《정치보복》의 칼을 벼르는 남조선정국도 《영웅》으로 살아남느냐, 《역적》이 되여 죽느냐의 험악한 싸움판으로 변하고있다.

우선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이 서로 집권하면 상대방을 감옥에 처넣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는것이다.

《더불어민주당》후보인 리재명은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과 그 일가의 부정부패의혹을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부정부패로 규정하고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도적떼무리인 《국민의힘》을 일망타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윤석열은 또 그대로 리재명이 대장동개발특혜의혹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그와 《신적페》인 현《정권》을 청산하겠다고 고아댄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공정》과 《정의》를 운운하면서 현《정권》의 부패를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로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내고있으며 보수언론들도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것들을 쳐낼 《청소부》, 《싸움군》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내돌리며 보수세력을 적극 부추기고있다고 한다.

《정치보복》은 최악의 《정치후진지역》인 남조선에서 정례적인것으로 되여있는 고질적인 악습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을 잡기 전부터 《정치보복》을 고아대고있으니 그들이 속에 무서운 앙심을 품고 어떤 《정치학살》을 계획하고있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것이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현《정권》에 복무하였고 리명박과 박근혜를 구속하는데 앞장섰던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된것은 보수세력이 누구에게 몽둥이를 쥐여주어야 하는가를 계산해본 결과이다, 홍준표보다는 검사출신 윤석열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였기때문이라고 평하고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여야당사이에 사생결단의 험악한 싸움판으로 전락되고있다, 이기면 《대통령》이 되지만 지면 감옥에 가는 처절한 선거로 되여가고있다, 선거전이 아니라 복수전으로 번지고있다고 평하였다.

《영웅》이냐, 《역적》이냐?

민생을 살리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는 내팽개치고 《무조건 권력》과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여 날뛰는 사이비정객들에게 민심은 과연 어떤 심판을 내릴것인가.

김창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강력히 비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기득권청산시민련대》가 얼마전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만을 일삼고있는 여야정치권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발언자들은 지금 여야모두가 친일, 친미, 반통일, 반민중적행태로 일관하고있으며 어떠한 사안에서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집권야욕에만 사로잡혀 누가 더 밥그릇을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정쟁에만 몰두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민은 인내심있게 기다려왔지만 기성정치권은 정신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이상 《기득권》과 정치권에 구걸하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계속하여 이번 《대선》은 《대권》욕심으로 정쟁만 일삼는 《기득권》세력 대 적페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싸움이며 국민이 나서서 지금의 정치판을 갈아엎고 새 정치를 열어야 한다면서 《기득권》청산투쟁을 선포하고 집중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민생외면 밥그릇싸움 기득권정치 갈아엎자!》, 《친미친일 굴종외교 기득권정치 청산하자!》, 《적페청산 사회대개혁으로 새 정치 창조하자!》 등의 구호를 웨쳤다.

본사기자

기득권 청산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